

한글
킹제임스

스코필드

한영주석성경

The Original Scofield Study Bible

KOREAN · ENGLISH

말씀보존학회

서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엄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있다. 이 전쟁은 경세기 3장에서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르러서야 끝난 것이다. 이 전쟁은 두 전쟁으로 나뉘어 싸우는 것이나, 하나님의 천영과 사탄의 지영이다. 하나님의 천영은 성령께서 주사하시고, 사탄의 지영은 사탄이 주관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그 복음을 거부하여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다. 여기에는 중립 지대도 없고 예외도 없다.

모든 거듭난 사람들은 좀더 정신하라면 성경을 믿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과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담된다. 성경을 믿지 않으면 믿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은 영계에 속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 계시는 믿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를 잃으며, 이 믿음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능력이다(히 1:10).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에서 사탄이 주로 화제의 목표로 삼는 것은 성경의 원본이요, 또 그 나라의 언어로 된 성경이다. 성경은 영도의 믿음의 실행에 있어 하나님의 권위이며, 그 권위는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권위이기 때문에 사탄은 이 권위를 흔란시키고 이 권위를 격하시키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Containing the Old and New Testaments
Korean King James Bible(KKJB)
and King James Bible(A. V. 1611)

KKJB is A Literal, Fundamental Translation
from King James Bible
Wordings are checked to be harmonized with
Hebrew Masoretic Text in Old Testament
and Greek Textus Receptus in New Testament

Copyright © 1994 Word of God Preservation Society
P.O. Box 90, Kang Seo, Seoul, Korea
Printed in Korea

이 중대 교회 이류로 사탄은 수많은 거짓 신학자들을 일으켜서 성경을 반개시켜 놓고, 그 성경이 옳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여 왔다. 사탄의 주종자들은 한결같이 반개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편중하며, 그들의 교회의 신학교에서 가르쳐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학 교회사들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들은 반개된 성경과 면개되지 않은 성경을 놓고, 어떤 성경이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늘 반개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다. 이들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도 않은 뿐만 아니라, 그 소중함을 의지할 수도 없는 가담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개개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므로 성경만큼까지 주시는 중언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 성경을 반개시키는 악한 세력들로부터 순한 피해를 면했으며, 또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죽이 종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 성경은 히브리어 및스와 원본으로 된 본란 없이 보존되어 왔으나, 신약성경은 A.D. 250년경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을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게 인정하지 아니한 필로(Origen, B.C. 30-A.D. 50)와 오리겐(Origen, A.D. 184-254), 또 그의 주종자들에게 의해 상당 부분이 반개되었고, 그들에 의해 반개된 성경에서 유게타무스가 원초본의 명을 받고 50편의 사본을 복사한 것이 확산되어 반개된 사본의 씨가 되었다. 유게타무스가 복사한 사본에서 제동이 러면 개기도 만들어냄으로써 커다란 성경의 왜곡이 되었다. 이 반개된 사본들은 주로 로마의 카타콤의 안락사드리아의 카이사리아에서 반개된 후 로마와 여러 지역들로 확산되었는데, 이 가운데 대표적인 사본으로 손꼽히는 것이 마티아스본과 사데사본으로, 모두 4세기 때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안데는 유게타무스가 복사한 50편의 사본이 재작성된 연대와 같다. 마티아스본이 반개된 것은 1481년이었고, 사데사본이 반개된 것은 1816년이였다. 어떤 사람들은 이들 두 사

본이 원인은 전종했다로 하는데, 이러한 말은 원인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살피더라도 없다. 그러나 장서부는 원동원문과 비교할 때 무리 5788년이나 빈게타이였으며, 사해지전 무문도 장서부였다(무 199) 2016. 2022. 2023. 2344. 289). 무 6116. 9446. 9466. 9499. 10211. 11266. 13146. 15228. 등 2333. 464. 488. 4911. 23338. 5. 1346. 1277. 3151. 546. 6669. 9235. 등 2306. 8377. 960).

이 시부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1481년 이후에만 그들의 정경 사부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다면 본래 교회에서부터 1481년 이전까지 마는 성경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1400여 년 동안이나 마는 성경이 없지 교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으며,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것인가? 더욱이 이들 시부에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 두 시부를 근거로 1881년 영국의 웨스턴로드(Weston Road)와 홀트(Holt)가 헬라어 신약성경을 민들여 출판하였고, 독일에서는 아예 빌헬름 라이온(Neubauer)이 1888년에 소위 마소(Masada)편을 출간했다. 웨스턴로드와 홀트의 시부에서 영어개역본(OV, 1880), 마소본역본(MSV, 1901), 개역표본역본(MSV, 1952), 개역개역본(NIV, 1978) 등이 나왔고, 대승원학 피카츠포역본(MSV)과 중세 성경에 헌납이 《개역한글판성경》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들 성경 번역가들은 헬라어도 신앙적 목적으로 개역본역본(MASV), 개역개역본(MRSV) 등을 내놓고 있다.

한편 신약성경의 원본은 사도 시대 이후 주로 아시아의 지역 교회들과 신도들에게 산재되어 있었으며, 이 시부들이 신성한 성도들의 손에 의해, 또는 사립들이 최종본으로 보존되어 있던 것일 수 있다. 이 원본은 어떤 세력들의 관도권 기지 영감을 받아 유입으로 유래했고, 독일에서 영적으로 들어왔다. 이 원본은 어떤 세력들의 성경 번역 시도와 깊은 관련 속에서 한 번도 그 번역 없이 지어지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다. 전통원본(Traditional Text)이란 성경의 본래 원본이다. 초대 교회에서 사용된 이 성경은 AD. 157년 무문 이베리드 회에서, AD. 177년에 로마 교황스콜로티에서, AD. 200년경에는 시리아 교회에서 사용되었고, 특히 AD. 312 1453년까지 비잔티움 제국 기간 동안에 계속된 모든 교회들에서 1천 년 이상 사용되었으며, 예레산투스(Eusebius, 1535), 스테판누스(Stephanus, 1551), 베지(Bezza, 1598), 엘지비(Elzevir, 1633) 등을 통하여 원본원문(Texcus Receptus)으로 복수되었다. 이 원본에서 독일어로는 종교개혁 성경인 《누역성경》이 1534년에 나왔고, 영어로는 《개역성경》이 1611년에 나왔다. 《개역한글판성경》은 위문 신부시부들이 와서, 성경 없는 《마소본》의 복음을 전파했다. 것이 불가능함을 생각했고, 원본이 명확히 지적되어 있거나 원본 증거에 대한 식견 등이 미비한 상태에서 만들어낸 성경이며, 당시 사회적 환경에 비추어 볼 때 《마소본》 나온 수 있었던 것은 권력 인사들의 무분별한 사명감과 양심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믿어진다. 이 성경 중 특히 1938년 편이 수차례 개정되었고 1952년에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이후에도 이러한의 개정을 반복하여 오는데 이르기까지 근본적으로 성경의 자리를 지켜 왔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어디까지나 마는 성경이 나오기까지 인식적 성경이 되었어야 할데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성경 번역사가 나오지 못함으로써 인하여서 너무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이 성경에서 이 성경의 미비함을 두터이 드러내 주려는 의도 없이도 생각된다. 하나님께 없는 성경이었기에 60년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성경 독자들은 마소본의 어지가 없이 무독이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있었다.

한편 대한성서공회는 이 성경을 대체 시기 불의혹을 가지고 1977년 개인본과 권주주의 협력으로 공동번역을 내놓았으나, 그것은 자마 성경이나 다를 수도 없을 만큼 영어와 히브리어로 마소본으로 《공동번역성서》라 이름붙였고, 지금은 권주본인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쓰지 않으며, 제 3차 시부의 명가 수으로 사치지 비었다. 《개역성서》가 다시 시도하여 1993년 《공동번역성서》를 만들었는데, 이 성경 역시 많은 권력의 협력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 마소본으로 돌아왔다.

마는 성경 없는 마소본 신약이 없다. 성경은 교리들 제는 초대(Cannon)인데 둘이 초대로는 교리들을 함께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대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부에게는 하나님의 권대권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조항도 주지 않으신다. 많은 사람이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개혁을 이루는 것은 법제하지 않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뿐이다. 하나님은 “책”을 통해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니(사 40:6-8, 19:21). 또 성경은 성경이 만들어진 대로 성도들을 인도하신다(사 40:6-8).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부패시키지 않으신다(사 40:6-8).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신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책을 계시하신 알렉산드리아 시부들에서 제 4차 회개된 성경들(무 2333. 행 837. 960. 10211) 시부를 예수 그리스도의 직책을 계시하신 알렉산드리아 시부들에서 제 4차 회개된 성경들(무 2333. 행 837. 960. 10211) 시부를 예수 그리스도의 직책으로 계시하시니(사 40:6-8). 하나님께서는 “말”을 하나님의 사경으로 간주하지 않으시며, 그런 성경으로 계시하시는 인도기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경을 믿는다는”은 그분의 뜻을 이루지 않으신다.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말”을 하나님의 사경으로 간주하지 않으시며, 그런 성경으로 계시하시는 인도기배하지 않으신다. 그런 성경이 성경의 원본이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기록된 절대무한 성경이다. 그러나 어떤 성경이 그런 성경인가? 영감은 그런 성경을 기록한 손에 들었는가?

이 성경을 번역하게 된 것은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려는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이다. 1988년 시부들(사 40:6-8)이던 이름으로 출간한 이데 1990년 신약성경을 출간했고, 1991년에 신약성경적서인 《한글개역성경》이 출간되기에 이르렀다.

구약의 번역은 처음부터 헬라어와 맞춘 원본을 영어로 옮긴지 원수한 《개역개역성경》에 기 번역하였고, 신약은 처음에 헬라어 표본원본에서 직역했으며, 《개역개역성경》과 대조하여 《개역개역성경》에 권거하게 어휘를 맞추었고, 구약의 어휘는 헬라어와 맞춘 원본과 비교, 부정적임으로써 헬라어, 헬라어,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데만 사용하게 될 수 있다. 언어의 격차를 줄여드리고 드러내었다. 또한 언어 번역의 원칙이라고 대체되는 문장 재구성하게 될 수 있다. 언어 번역은 원본이었고, 표현기법에 있어서 어휘 것보다 더 낮고 원본과 비교하여 견제하였다. 《개역한글판성경》으로 약속해져 마진 부주의 및 전통적 문장의 의식적 없으리도록 노력했으며, 장구사원(Young's Concordance)의 어휘법을 원본적으로 번역하지 않고 오히려 본 성경의 어휘는 새로운 성구시절을 만들어, 사세로 어휘의 통일성과 타말어 의미의 전파에도 공헌을 하였다.

태초에 “말”이 있었나? 하지만은 말이 있게 된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 하나님은 음까지 반강박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가운데 언어가 주신 언어 아닌 수 없다. 특히 주님의 제명이 임박하여 마시(마 24) 때에 이 성경이 나온 것은 마한 사립이라든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으로 기록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은혜임을 신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성경은 양면이 시부들까지 성경의 사이(사 40:6-8) 이것은 자기에게 나왔던 어떤 장년(사 40:6-8) 이었고, 양면이 시부들에게는 그들의 피에 불피한다. 한국인에게는 한자어로 광 변역된 한글 성경만 이었고, 양면이 있는 것이다. 그 성경만이 하나님의 절대권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사해되고 면해진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절대무한 말씀이 될 수 없기에, 우리는 이제야 한글로 고본된 성경을 갖게 되었다. 원본의 의미는 우리말로 알려나 정확하게 번역하였는지 주의깊게 살펴봐 주셨으면 한다.

이 성경이 다음으로 해서 지금까지 《개역개역성경》은 인용하여 기록된 수많은 문헌들이 제한받지 않고 변역되고 출판될 수 있게 되어 일어나 구시편지 모른다. 어떤 책들이 나와서 성도들의 손에서 임박한 때, 자유주의 신앙도 사라지게 되고 거짓 부사, 학사들도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마소본이 땅에 그렇게 바닷된 천년을 개혁의 불꽃이 된 것이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제명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반쯤은 주화의 상징 표현인 원들의 원형간은 언뜻과 노력이 없었더라면, 또 상징적 표현의 정도 이니문의 또거은 사냥과 지획이 없었더라면, 또 주화의에 제시 직선한 점도들의 성획이 없었더라면 이 상징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주석 성경을 주기하여 본 성경에 사용된 용어들을 설명함으로써 가장 성경 주석들이 면해 놓은, 오류들을 지적적으로 바로잡아 독자들은 하여금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 성경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영회자가 될 권택히 기도하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 이서도 내 믿음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태복음 24:34,35)

1994년 4월
반쯤은 주화의 대표
이송 오쿠사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일터두기

1. 영이 《경제임스상징》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들의 첫 글자나 전체 글자를 대부분으로 쓰고 있다. 반면 한글은 대소문자 구분이 없기 때문에 사체에 면회를 주어 본문해와 다르게 고딕체를 사용했으며, 그 외기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들을 다음과 같이 구별하였다.

하나님(God, 창 1:1), 하나님(GOD, 창 15:2), 주(LORD, 창 2:0), 주 하나님(GOD LORD, 창 22:0), 주 하나님(Lord GOD, 창 15:2), 여가서 진한 고딕체의 "주"와 "하나님"은 보통 고딕체의 "주"와 "하나님"과 다르게 "여호와" (Jehovah)를 의미한다(출 5:14, 6:3), 영이 《경제임스상징》과 《한글경제임스상징》은 히브리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 테 루사(Elengannuon, YHWH)를 가진 "여호와" 스상징은 히브리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 테 루사(Elengannuon, YHWH)를 가진 "여호와" (Jehovah)라고 번역했으며(출 6:3, 사 83:18, 사 122:26:6), 이외의 모든 경우에는 신구약 전체에서 진한 고딕체의 "주"와 "하나님"으로 번역했는데, 이는 히브리어 성경의 무음부호에 따라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구분하여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영이 번역본들과 한글 번역본들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테 루사가 일 관성 없이 뒤섞여 있다. 한편 영이 《경제임스상징》과 《한글경제임스상징》은 여호와아데(chowahadch, 창 22:14), 여호와아시(chowahadch, 창 17:15), 여호와살롬(dikowahadch, 창 6:24) 등과 같이 "이호위"라는 표현이 있는 복합된 이름들도 함께 기록하고 있다.

2. 하나님을 지칭하는 대명사는 대체로 대명사를 사용한 경우 다른 대명사의 혼동되거나 무리만의 정식 사용하지 않은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앞에 나온 정명사를 그대로 사용한 곳이 많다. 문맥의 앞에서 신명사로 기록된 고딕체의 "하나님, 주, 예수" 등이 있을 경우 그 다음에 나오는 3인칭 대명사는 본문에 사용된 명조체로 "하나님, 주, 예수" 등으로 표기하고, 2인칭의 경우에는 "당신" (께서, 의, 을, 께) 대신에 "주"(께서, 의, 를, 께)로 표기함으로써 문맥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문장의 분위기를 우리만 정사에 맞게 잡았다. 《한글경제임스상징》에서 본문체로 표기된 하나님, 주, 예수 등의 표현은 모두 대명사를 신명사로 기록한 것이다.

또한 본문체보다 "작은 글"의 글씨"로 표기된 "주"나 "나"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사탄이나 왕사, 또는 삼위 일체 하나님 외의 다른 대상을 향해 "주"라고 지칭하는 경우에 신격을 나타내는데는 하나님의 이름인 "주"(Lord)와 "주"의 대명사를 신명사로 표기한 본문체의 "주" 등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내 주의 (my lord, 창 23:6)]

3. 영이 《경제임스상징》은 경제임에 대한 표현 역시 "the Holy Ghost", "the Holy Spirit", "the Spirit" 등 과 같이 대문자로 쓰고 있 기 때문에 《한글경제임스상징》은 고딕체 "영"으로 번역했으며, "하나님의 영" 이다. "그리스도의 영"과 같은 표현에서는 "영"이라는 표현 대신에 고딕체로 "영"이므로 번역하여 구분

하였다(89) - 그리고나 하나님께 영(the Spirit of God)이 내의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the Spirit)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the Spirit of Christ)이 없으면 그의 사랑이 아니니라.

4. <한글개입스장경>은 하나님의 이름들을 대문자로 사용한 경우 외에 상위인체 하나님의 신성은 나타내는 대문자 표현들을 고딕체로 표기함으로써 그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번역했다. <영광의 신본(the Almighty, 장 10:25), 자국히 들으신 본(the most High, 민 24:16), 거룩하신 본(the Holy One, 왕 19:22), 하나님의 아들(the Son of God, 요 1:3), 말씀(the Word, 요 1:1) 등 모든 특별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한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기록한 경우에는 고딕체로 표기했어야만 영(the Lamb, 요 1:29), 왕(the King, 요 1:49) 등 한 단어나 구절체가 대문자로 기록된 경우는 전한 고딕체로 표기하였다. 1. <신비라, 큰 비밀이라, 영의 자녀들과 기증할 것들의 의미라.> (MYSTERY, FAITHION THE GRADY, THE MOTHER OF HARLOTS AND APOCATIONS OF THE PART II) - 제 17의

그러나 영에서 인정함에 사용되는 대문자는 신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들과 구별한 의미의 대문자들과 구분하기 위해 고딕체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부분체로 표기했다.

5. 본문체보다 “작은 크기의 이탤릭체”로 기록된 단어나 구는 영어 <강제입스장경>이나 원문에 없는 표현이지만 한글의 문법 구조상 그 표현이 있어야 어법에 맞기 때문에 추가된 것이다.

스코필드 주석 성경 간행사

CI 스코필드(Cyrus I. Scofield)가 맨 처음 하나님의 말씀에서 부엌인기를 매우려고 노력했으나 성경 공부의 첫 번째 원칙을 간파했을 때, “내가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석 성경은 어떤 것인가?” 라는 질문이 그로 하여금 30년 동안 주석 성경을 만드는 일에 몰두하게 했으며, 그 결정체본이 될 것이 바로 스코필드 주석 성경(Scofield Study Bible)이다.

1.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도구를 쓰임받았을 때, 그가 이뤄 놓은 과업은 무엇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 각성을 얻으며 변화된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알게 하는 데에 기여했다는 후대는 그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스코필드 주석 성경> 덕분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이런 종류의 주석 성경들이 영어로 나왔고, 우리 나라 출판사들도 이런 주석 성경들을 번역하여 내놓고 있지만, 신학과 하나님의 경박성에 있어서나, 성경을 성경으로 뒷받침해 주는 데에 있어서, 또 해석의 일치성에 있어서 <스코필드 주석 성경>은 능가할 수는 없었다.

1.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면, D.L. 무더는 대시양을 오기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수백만 명을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했다. CI 스코필드는 성경을 음파로 나누어 해석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것이다. 한 사람의 생애가 그리스도 안에서 값있게 쓰임받았다는 것은 그의 노력의 열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신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였는지를 보면 알게 된다. 무더는 사람이 우물을 파듯이, 스코필드는 영적 지식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역할을 이루어 냈다. 이처럼 귀한 열성을 가져 오기까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리적인 개입이 있어야 불가능한 일이다.

스코필드는 1893년 8월 19일 미국 미시간 주 뉴 웨인턴에서 태어나서, 17세 때 남북 전쟁에 참전하여 로버트 리 장군 휘하에서 싸웠다. 연이될 번 이상 참전하였고, 그 용맹성이 인정되어 참전 훈장을 받기도 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법률을 공부하여 1899년에는 제너스 주에서 변호사가 되었으며, 3년 후에는 주의 회의원이 되었고, 당시 17년도 미 대동맹은 그를 제너스 주 검사로 임명하였다. 1899년 그는 공적으로 사회라고 면허사 직업을 수행했는데, 그는 술을 즐기는 사람이었으나 그의 친구 톰 배커티즈(Tom Backertis)에 의해 목욕을 들고 구원받게 된 인물은 달리 알려지지 않다.

스코필드는 당시 저명한 장로교 목사이자 성경 교사인 J. 루스(James H. Brooks)의 권유를 받고 사회주의적 성경 해석 방법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루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으로도 경위를 해석하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는다.” <스코필드 주석 성경>은 바로 J. 루스의 가르침에서 아히디어를 얻은 것이다.

스코필드는 1882년에 면허사 직업을 그만두고 텍사스 주에 있는 달라스 제일 회중 교회를 받았고, 1883년 10월 17일에 목사 임명을 받았다. 그는 한 번도 정규 신학반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도구는 쓰임받았을 때 놀라운 지혜와 능력의 조명을 위로부터 받았던 것이다. 그는 무더(D.L. Moody)와

주요였으며, 부디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강례식을 취사하기도 했다.

그가 누구냐 알기 쉬운 주석 성경을 만들거나 30년전 영성을 찾아 내서 영을 오기만 했을 때 영도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그에게 주석학을 이용하게 했고, 영도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가 《스코필드 주석성경》의 출판자가 되었다.

그의 역작은 미국의 방해가 뉴비이나 있었다. 한 번은 불이 나서 원고가 거의 소각되어 버렸고, 또한 비은 글로모(Morantux)에서 뉴욕(New York)으로 워싱턴을 발송했는데 원고가 분실되었던 것이다.

많은 기독교 단체 《스코필드 주석성경》은 1977년에 완성되어 1999년 1월 15일 대중에게 소개되었다. 1974년 스코필드는 루이스 캐이퍼(Lewis S. Caffer)와 윌리엄 페팅엄(William I. Pettigrew)과 더불어 필라델피아 성경 신학원을 만들어 일하다가 1977년에 개성원을 내었다.

스코필드가 마지막으로 교회에 출석한 것은 1921년 5월 22일이었다. 그로부터 두 달 후인 7월 23일 주일 아침에 그는 주님의 침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한때 권인이었고, 후에 제1회 연호사였던 그가 36세에 그 디스톤의 죽음(출 1:6)으로 부활을 받아 권리에 이르렀고 주님께 헌신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자신의 감동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30여 년간 연구했던 성경이 자신은 불문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백만 명의 손에서 중독되지 않고 읽히려고 깨달음을 주는 귀한 주석 성경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성이므로 일인이 분명하다. 이 귀한 주석 성경이 지금까지 한라 교계에 알려지지 않은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첫째, 《한국경제인(주석성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인(주석성경)》이 없으면 주석 성경을 만들 수 없다. 《경제인(주석성경)》은 종교개혁 성경이며, 지명된 부처와 부흥사, 성경 교사, 성교사 등을 모두 다 《경제인(주석성경)》을 사용했다.

둘째, 이 땅의 내부부의 교회들이 재대주의에 대격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이 땅의 내부부의 교회들이 재대주의에 대격하였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권면하신다. 『내가 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딤후 2:15).

성경은 나누어 공부하지 않으면 할 수 없게 된다. 성경은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과 교회 등 세 부류로 대 상으로 기록된 것인데(고전 10:32), 이를 나누지 않으면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교회로 해석하게 되고, 이방인에게 주신 말씀을 유대인에게 주신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 『네서 인하여 신학자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은유적으로 해석하여, 신리법 깨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문거리고 있는 것이다.』

모든 신자서와 영성은 요한까지도 예언한 것이다(마 11:13). 또 『음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골 2:17). 이것이 새대주의이다.

영언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90년 이상 사랑받아 온 《스코필드 주석성경》이 《한국경제인(주석성경)》으로 번역되어 출간됨을 나는 매우 의미있는 일로 여긴다.

이제 이 땅은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암 8:11).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직식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 기근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직식의 부흥으로 번영하기 때문이다(호 10:6).

이 주석 성경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동안 심혈을 기울여 주신 성경번역교회와 말씀보존회회의 아낌없는 순결들에게 감사할 드린다. 이 주석 성경으로 신리에 이르르고 하나님을 바른 신기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원한다.

1999년 10월 12일

말씀보존회와 대동 이 중 오 목사

스코필드 주석성경 서문

성경을 읽고 성교회는 부차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성경 교사이며, 또 성경을 주시도 책을 쓰기도 하고 강의도 하는 사임으로서 본 원실인요. 지난 30년 동안 성경 연구에만 전념해 왔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성경 원본들이 늘 본 원실인의 할에 놓여 있기 마련이었다. 이것들을 읽으며 많은 시간 응고니아 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 모든 원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린 대로 잘 읽어 놓아 유용하게 읽을 수 있는 훌륭한 것들이었지만, 『더번서도 그것들이 어린이 마음한 내가 읽었다.』 그것을 번역될 수가 없었고, 그런 생각이 전권 기자가 가디니 나중에는 정말 이해서는 안 되었다. 생각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본 원실인의 마음속에 자리잡게 되었다. 본 주석 성경은 바로 이런 과정에서 잉태되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나면 기가서 배우고 깨달은 비록 신학에 옮기고 설명하게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네 이렇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것까지 사형들을 받아 하나님께 하녀적 충직해 나가다 보니, 나중에는 그것들이 한데 이루어져 명료한 모습으로 정리되고, 마찬가지로 일복요한하게 체계가 잡혀 나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본 원실인은 많은 사형들로부터, 그 업적을 널리 인정받고 있는 영구과 미국의 여러 성경 학자들과 교사들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연구 경험이 풍부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던 많은 인가들이 배움이 준 『노 이경없는 협조는 아무 다 해야 할 수 있을 만큼 값진 것이었다.』 이 귀중한 도움을 바탕으로 본 원실인은 나름대로의 모든 역량과 노력을 다 쏟았으며, 그 결과가 바로 이 주석 성경이라는 작품으로 간직되기에 이르렀다.』

『본 주석 성경의 모든 편집자들은 요한까지도 다음과 같다.』

1. 지금까지 나온 주석 성경들은 성경 본문의 영이 단어들을 그대로 관련 구절들을 찾아 나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그 자체로 비과학적인 반면 아니라 정확성이 결여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이에 반하여 본 주석 성경은 주제별로 관련된 구절들을 찾아내는 새로운 체계로 체계적으로 하나 하나의 구절이 담겨 있는 모든 위대한 것들이 최초로 언급된 부분에서부터 최종적으로 언급된 부분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에 걸쳐 체계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영감을 받은 여러 기능자들은 여러 제대의 여러 기록과 놓음, 말씀들이 담겨 있는 진리들을 독자 혼자서 하나하나 차례로 읽어 나가다 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에서 그 직업을 이루게 되는 지경에 닿을 수 있도록 해놓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 공부에 한결 재미있고 생명이 담겨 있게 되는데, 단편적인 주석으로 주제와 주제 사이로 제대로 잇지 못하고 있는 기존의 주석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러한 효과를 낼 수가 없다.

2. 지난 5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성경을 연구하게 되었고, 그 과정의 끝에 신도가 역 사상 유해없이 내뉜 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부도했기다와, 경건하고 학식이 높은 영적인 사형들로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 연구에 손을 댔던 것도 일찍이 없었는데, 그것도 어떤 신학적 논쟁에 이용하려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순수한 마음에서 그랬던 것 역시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 결과 새로운 주석서 및 해설서들이 잇달아 더해져 나왔는데, 그 양이 워낙 엄청나게 많은지라 그것들을 다 사서 읽는다는 것 은 기가치 소모되는 시간과 경비로 보아 일반 독자들에게는 엄두조차 낼 수가 없었다. 반에게에 걸쳐 새장

에 나타난 이 수많은 성경 연구자들의 내용을 검토하고 중요한 것들을 추려서 그에 대한 개요와 핵심 및 정의들을 본 주석 성경의 주석에 놓았는데, 포기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로 쓴 해설서라는가, 단순히 개인적인 견해를 개진하고 있는 것들은 물론 배제되었다.

3. 도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페이지 내에 도움이 많은 수목하여 즉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예를 들면, 히브리 번역에 따른 단 어들이라든가, 중방이나 화해, 또는 치수의 단위 등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되는 영이적 단위를 해당 페이지의 주석에 표기해 놓았으며, 의미의 모호함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이라든가, 그에 대한 상반되는 해석상의 차이점들이라든가, 중요한 예외나 상정들에 대해서는 해당된 페이지에 영이적 방제학 주석을 달아 놓았고 해당 페이지의 주석란에서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다.

4. "어떠어떠한 성경 구절이 이것을 증거한다." 고 누가 말할 때, 이것이 사실인 동시에 또 사실이 아닌 양 단정을 명수가 있는데, 어떤 특정한 구절만 매어나가 적용하면 사실처럼 들리지만, 하나님께 계시 직제에 비추어 보면 전적으로 틀린 법인 경우가 허다하다. 본 주석 성경에서는 중요한 내용은 담고 있는 구절이 다음 매마다 그것과 관련된 참고 구절들을 모두 말하며 동시에 성경 전체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내용으로 분석하고 개요를 정리해 놓음으로써 독자가 몇몇 구절이나 구문만이 증거 구절만 갖고 그것에 기초 고편적인 전례의 양 정곡하게 결론을 내리는 일이 없도록 했다.

5. 성경에 "동해안 의미로 갖는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가령 "양치밭"이라든가, "증보"라든가, "모장", "수레", "교회", "회심", "침방", "대리석", "영원한 생명", "영원한 형벌", "민음", "용서", "용서", "모해", "시용"("노수" 이진, "해마스" 전, "케레다" 인 간에), "진기", "왕의", "왕국", "왕국", "회해", "구속", "회개", "의", "구원", "성화", "죄", "재상"(새 거서 의인) 등과 같은 어휘들에 대해 쉬운 말로 간략하게 정의들 내리 놓았다. 이러한 정의들은 모든 복음주의 그룹에 속한 다수의 고명한 성경 학사들과 성경 교사들에게 사전 감수를 받았다.

6. 성경 66권 전체에 대해 서두는 써 놓았고, 동시에 내용 분류를 길들이 놓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내용 분류에 따라 적절한 소제목은 달아 놓음으로써 그 책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도록 했다.

7. 이니 거서 앞에서 탁월한 《킹제임스 성경》(The Authorized King James Bible, 1611)은 다른 많은 성경 역본들이 간히 견본 수 없는 독보적 우수성을 갖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경·권 구부의 매이남 합성정 이어따로 터의 주석을 말하러다. 본 주석 성경은 이러한 《킹제임스 성경》의 뛰어난 경·권 구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경 전체를 적절한 문단으로 나누어 내용에 따라 각 문단에 소제목을 달아 놓았다.

8. 그 동안 신자서들에 대한 현대 학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고, 그 결과 원문과 번역된 신자들이 밝혀졌고, 또 그것이 교회에 전해지게 되었다. 본 주석 성경은 이러한 새로운 주석 기술에 명 시해 놓음으로써 신자서들의 예전 내용들이 서로 조화될 이루어 견지하고 있는 명백성과 애인은 상호 간의 일관성을 제시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위대하고도 귀중한 영적 진리들을 밝히 놓았다. 성경 전체의 거의 대부분의 인용 제시하고 있는 신자서들은 거의까지 일반 독자들에게 완해 멀리 있지 않은 바탕에 그 원문 내용이 은유적이므로, 공식적인 구도 내에서 해석되어 온 게 사실이다. 본 주석 성경은 신자서들에 대한 현대적 연구를 통하여 각 구절들이 영감을 주는 안에 포함시켰으므로, 신자서들이 제시하고 있는 그 풍부한 문자적 내용들에 대해 인쇄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놓았다.

9. 인지와 삶에 하나님께의 연속 사역에 전대 맡겨진 하나님께의 인의들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가 거기에 초점을 모으고 있기니, 본 주석 성경은 이 인의들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그 인의를 하나하나가 서로 이 변태케도 가지며, 특히 그리스도와 갖는 관계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밝히 놓았다.

10. 하나님의 경륜을 체계적으로 나누어 인의에 대한 하나님의 광명한 계획들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전개되어 나가고 있으며, 인간에 광명이 창조된 이후부터 영인 세계로 이어지는 전과정을 통하여 시대의 흐름과 함께 "그 목적이 점진적으로 구체화되어 가는" 세대의 경륜들을 밝히 놓았다. 어거스터(Augustine)은 "시대적으로 구별해야 성경의 내용들이 서로 조화될 이른다." 고 말했다.

11. 이런 성경을 본 주석 성경의 서두로 삼을 것인가에 대해 충분히 수고하고 검토한 끝에 《킹제임스 성경》으로 결정했다. 개역된 성경들이 여러 가지 나왔지만, 그 어느 것도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들이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개역 성경(RV)도 인연에게 공개된 지 벌써 77년이 넘었다. 영이적에 수학 사 람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역본으로 자리잡기에는 아무족이었다. 시나시만의 밀친과 원부 비평학 안 아서 활동한 그리스바호(Gribbach), 라흐만(Lachmann), 티첸도프(Tischenendorf), 드레켈레스(Drengelles), 워너(Winer), 알브르(Alford), 웨스도워드(Wescott)와 홀드(Hold) 등의 학사들이 헬리어 《표 준역본》에 적으나도 부정확한 곳이나 몇 군데만 지적했다고 했지만, 오히려 이 역본을 기본으로 삼 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의 전반적인 정확성이야말로 최고 놀라운 수준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줄 셈이었 다.

본 편집인은 "원본"을 유추하는 모든 주장을 증거하는 개이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많은 노고를 쏟은 것 에 많은 연구 업적을 했어 왔지만, "원본"을 유추하는 자들은 이들이 했어 온 업적에 이제 막 발을 들여 놓은 자라들이다. 지난 50년 동안 고신 다면, 모든 교회의 각 분야에서 학문적으로 최고 수준에 있는 영이적 사 람들이 완성한 《표준역본》은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수 있는 원본과 그들이 남긴 엄청난 분량의 문헌만 해도 워만한 기독교 시의자들은 본서는 도저히 해될 수 없는 광대한 문헌이다. 본 편집인은 이 광대한 영의 자료들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개관 요약하는 힘든 일을 수행해 나가면서 실로 웃것은 여기까지 않은 수가 없었다.

본 편집인이 이 사역을 끝내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일에 동경하여 시간을 불 쓰듯 하면서 자신의 연 구 결과들을 아낌없이 제공해 준 활동 반경인문의 값진 조언과 협조에 힘입은 바가 심다. 크나. 이들이 있 기에 본 편집인은 여기에 실린 주석들과 정의들에 대하여 혼자 책임을 전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는 것이 다. 또한, 말할 수 없는 귀중한 조언들을 아끼지 않으면서 이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학회와 대학이 들 은 유림과 미수의 수많은 영적 형제들에게 감사할 따지지 않을 수 없다. 그 가운데서도 로잔 대학 신학부 학 제임스 바렐릿(James Barrelet) 교수,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비스(Dayce) 교수와 비탈리아드(Maryknard) 교수, 코명함 성경 교사 워터 스워드(Walker Scott) 씨, 그리고 보스턴 대학의 C.R. 이드만(Bushman) 교수를 거명하는 것이 큰 부채가 되지 않지 않겠다.

본으로 이니 해 동안에 걸쳐 이 사역을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해외의 유명한 성경 연구소들 을 방문하고도 빈번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께 감사할 따진다.

이제 완성된 이 작품이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려질 때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시기를 바란다.

1900년 1월 1일
C.I. 웨스워드

성경 목차

구약 (The Old Testament)

| | | | | | |
|-----------|--------------|------|-------------|-----------------|------|
| 창세기 (원) | Genesis | 1 | 천도서 (원) | Ecclesiastes | 1089 |
| 출애굽기 (출) | Exodus | 103 | 솔로몬의 노래 (출) | Song of Solomon | 1103 |
| 레위기 (레) | Leviticus | 182 | 이사야 (사) | Isaiah | 1113 |
| 민수기 (민) | Numbers | 239 | 예레미야 (렐) | Jeremiah | 1206 |
| 신명기 (신) | Deuteronomy | 317 | 예레미야 애가 (애) | Lamentations | 1307 |
| 사도수아 (수) | Joshua | 385 | 에스겔 (겔) | Ezekiel | 1316 |
| 재판관기 (판) | Judges | 428 | 다니엘 (단) | Daniel | 1407 |
| 룻기 (룻) | Ruth | 473 | 호세아 (호) | Hosea | 1438 |
| 사무엘상 (삼상) | 1 Samuel | 480 | 요엘 (요) | Joel | 1453 |
| 사무엘하 (삼하) | 2 Samuel | 540 | 아모스 (암) | Amos | 1459 |
| 열왕기상 (열상) | 1 Kings | 590 | 오바댜 (오) | Obadiah | 1470 |
| 열왕기하 (열하) | 2 Kings | 647 | 요나 (요) | Jonah | 1472 |
| 역대기상 (대상) | 1 Chronicles | 702 | 미카 (미) | Micah | 1476 |
| 역대기하 (대하) | 2 Chronicles | 755 | 나훬 (나) | Nahum | 1485 |
| 에스라 (스) | Ezra | 816 | 하박국 (합) | Habakkuk | 1489 |
| 느헤미야 (느) | Nehemiah | 834 | 스바냐 (스) | Zephaniah | 1491 |
| 에스더 (에) | Esther | 860 | 학개 (학) | Haggai | 1499 |
| 욘기 (욘) | Jonah | 875 | 스키랴 (스) | Zachariah | 1503 |
| 시편 (사) | Psalms | 926 | 말라기 (말) | Malachi | 1522 |
| 잠언 (잠) | Proverbs | 1049 | | | |

신약 (The New Testament)

| | | | | | |
|--------------|-----------------|-----|------------|------------|-----|
| 마태복음 (마) | Matthew | 1 | 디모데전서 (딤후) | 1 Timothy | 433 |
| 마가복음 (막) | Mark | 73 | 디모데후서 (딤후) | 2 Timothy | 440 |
| 누가복음 (눅) | Luke | 115 | 디도서 (딤후) | Titus | 445 |
| 요한복음 (요) | John | 187 | 빌레몬서 (몬) | Philemon | 449 |
| 사도행전 (행) | Acts | 244 | 히브리서 (히) | Hebrews | 453 |
| 로마서 (롬) | Romans | 313 | 야고보서 (약) | James | 474 |
| 고린도전서 (고전) | 1 Corinthians | 342 | 베드로전서 (베후) | 1 Peter | 481 |
| 고린도후서 (고후) | 2 Corinthians | 371 | 베드로후서 (베후) | 2 Peter | 489 |
| 갈라디아서 (갈) | Galatians | 389 | 요한일서 (요일) | 1 John | 494 |
| 에베소서 (엠펙) | Ephesians | 399 | 요한이서 (요이) | 2 John | 502 |
| 빌립보서 (필) | Philippians | 409 | 요한삼서 (요삼) | 3 John | 504 |
| 골로새서 (골) | Colossians | 416 | 유다서 (유) | Jude | 506 |
| 디살로니가전서 (딤후) | 1 Thessalonians | 423 | 요한계시록 (계) | Revelation | 509 |
| 디살로니가후서 (딤후) | 2 Thessalonians | 429 | | | |

The Old Testament

구약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한 이 다섯 책은 두만팔 년의 일이 하나년의 백성이 모든 시대에 걸쳐 체험한 이치를 담고 있는 50년의 책들이라는 점에서 성경 체계 내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취하고 있다. 창세기는 만물의 기원, 곧 생명의 시작과 죄로 인한 파멸을 담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을 열고 있는 "태초에 하나됨께서"라는 말은 "이집트에서 관에 놓였더라"라는 말로 연결한 대조를 이루며 끝을 맺고 있다. 출애굽기는 피멸한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구속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 레위기기는 구속받은 자들이 비평히 실천해야 할 제사의 교제를 다룬 책이다. 민수기는 구속받은 수레의 백성이 약속된 유업을 향하여 직대적인 세상을 거쳐가며 겪은 체험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신명기는 구속받은 백성이 유업의 땅으로 막 돌아간 즈음 지만남들을 되돌아보고 또 장래를 내다보면서 지시된 내리교 있는 책이다.

마침론과 오세리아의 비성경에는 창조와 대홍수에 대한 장엄한 시들과 감격 놀랄 만큼 유사한 기록들이 담겨 있다. 또 이 비성경들이 모세보다 시대가 앞선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 때문에 모세의 기록의 양간정을 더욱 확증할 수 있게 해준다. 창조와 대홍수에 관한 이야기들은 이 민족의 고대 요람기를 따라 전원이 되어 전해 내려왔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전설들이 다 그렇듯 바 이이 전설 역시 환상적이고 신화적인 특성들을 띠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어떤 게 아니라 바 밑본의 기록들도 이러한 특성이 풍부하다. 그러므로 전설이 오히려 되고 있는 터무니없고 유적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그 가리에 사실적인 역사적 계시로 채워 넣는 일이어야만 해도 영감이 가장 먼저 수행해야 될 임무의 것이다. 따라서 비합 내 없이 장엄한 말씀, 그러면서도 오히려 이해하면 하면 하단 지극히 과학적인을 알 수 있는 그 말씀들이 담고 있는 이 책 속에서 우리는 사실적인 역사를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오경을 통하여 성경 전체에 대한 사실적이고도 논리적인 서문을 읽게 되는 셈이다. 모세오경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계시이다.

5 하나님께서 그 빛을 1차로 부르시고 어두움을 부르라 부르시니라. 2차로 낮과 야람이 되니 셋째 날이라.

둘째 날: 물을 위아래로 나누심

6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고, 창공으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시니라.

7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8 하나님께서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4차로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셋째 날: 육지와 바다, 식물과 동물

9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의 물들이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곳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0 하나님께서 마른 곳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11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땅 위에 풀과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새를 가진 과일수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2 땅이 풀과 그 종류대로 새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새를 가진 나무를 내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13 4차로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

넷째 날: 해 달 별들

14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차로 밤을 나누기 위하여 하늘의 창공에 광명들이 있으라. 그것들로 하여금 계절과 계절과 날짜와 연도를 위해 있게 하라.

15 그리고 광명들은 하늘의 창공에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6 하나님께서 두 가지 큰 광명을 만드사, 작은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별들도 만드시니라.

17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의 창공에 두시고 땅 위에 비추게 하시며

18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

1. 4차로 부르시고, "빛" (Day)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사용하시니라.

(1) 창세기 1:5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은 낮이라 하라. 어두움은 밤이라 하라." 하시니라.

(2) 창세기 1:5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은 낮이라 하라. 어두움은 밤이라 하라." 하시니라.

(3) 창세기 1:5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은 낮이라 하라. 어두움은 밤이라 하라." 하시니라.

(4) 창세기 1:5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은 낮이라 하라. 어두움은 밤이라 하라." 하시니라.

(5) 창세기 1:5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은 낮이라 하라. 어두움은 밤이라 하라." 하시니라.

(6) 창세기 1:5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은 낮이라 하라. 어두움은 밤이라 하라." 하시니라.

(7) 창세기 1:5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은 낮이라 하라. 어두움은 밤이라 하라." 하시니라.

(8) 창세기 1:5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은 낮이라 하라. 어두움은 밤이라 하라." 하시니라.

5 And God called the light Day, and the darkness he called Night. And the evening and the morning were the first day.

The second day: waters above and below.

6 And God said, Let there be a firmament in the midst of the waters, and let it divide the waters from the waters.

7 And God made the firmament, and divided the waters which were under the firmament from the waters which were above the firmament: and it was so.

8 And God called the firmament Heaven. And the evening and the morning were the second day.

The third day: land and sea: plant life appears.

9 And God said, Let the waters under the heaven be gathered together unto one place, and let the dry land appear: and it was so.

10 And God called the dry land Earth: and the gathering together of the waters called he Seas: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11 And God said, Let the earth bring forth grass, the herb yielding seed, and the tree yielding fruit after his kind, whose seed is in itself, upon the earth: and it was so.

12 And the earth brought forth grass, and herbs yielding seed after his kind, and the tree yielding fruit, whose seed was in itself, after his kind: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13 And the evening and the morning were the third day.

The fourth day: the sun, moon, and stars.

14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s in the firmament of the heaven to divide the day from the night; and let them be for signs, and for seasons, and for days, and years:

15 And let them be for lights in the firmament of the heaven to give light upon the earth: and it was so.

16 And God made two great lights; the greater light to rule the day, and the lesser light to rule the night: he made the stars also.

17 And God set them in the firmament of the heaven to give light upon the earth, and to divide the day and over the night, and to divide the light from the

1. 창세기 1:5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은 낮이라 하라. 어두움은 밤이라 하라." 하시니라.

2. 창세기 1:5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은 낮이라 하라. 어두움은 밤이라 하라." 하시니라.

3. 창세기 1:5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은 낮이라 하라. 어두움은 밤이라 하라." 하시니라.

4. 창세기 1:5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은 낮이라 하라. 어두움은 밤이라 하라." 하시니라.

5. 창세기 1:5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은 낮이라 하라. 어두움은 밤이라 하라." 하시니라.

6. 창세기 1:5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은 낮이라 하라. 어두움은 밤이라 하라." 하시니라.

7. 창세기 1:5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은 낮이라 하라. 어두움은 밤이라 하라." 하시니라.

8. 창세기 1:5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은 낮이라 하라. 어두움은 밤이라 하라." 하시니라.

9. 창세기 1:5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은 낮이라 하라. 어두움은 밤이라 하라." 하시니라.

19 And God called the light Day, and the darkness he called Night. And the evening and the morning were the first day.

The second day: waters above and below.

6 And God said, Let there be a firmament in the midst of the waters, and let it divide the waters from the waters.

7 And God made the firmament, and divided the waters which were under the firmament from the waters which were above the firmament: and it was so.

8 And God called the firmament Heaven. And the evening and the morning were the second day.

The third day: land and sea: plant life appears.

9 And God said, Let the waters under the heaven be gathered together unto one place, and let the dry land appear: and it was so.

10 And God called the dry land Earth: and the gathering together of the waters called he Seas: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11 And God said, Let the earth bring forth grass, the herb yielding seed, and the tree yielding fruit after his kind, whose seed is in itself, upon the earth: and it was so.

12 And the earth brought forth grass, and herbs yielding seed after his kind, and the tree yielding fruit, whose seed was in itself, after his kind: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13 And the evening and the morning were the third day.

The fourth day: the sun, moon, and stars.

14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s in the firmament of the heaven to divide the day from the night; and let them be for signs, and for seasons, and for days, and years:

15 And let them be for lights in the firmament of the heaven to give light upon the earth: and it was so.

16 And God made two great lights; the greater light to rule the day, and the lesser light to rule the night: he made the stars also.

17 And God set them in the firmament of the heaven to give light upon the earth, and to divide the day and over the night, and to divide the light from the

1. 창세기 1:5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은 낮이라 하라. 어두움은 밤이라 하라." 하시니라.

2. 창세기 1:5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은 낮이라 하라. 어두움은 밤이라 하라." 하시니라.

3. 창세기 1:5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은 낮이라 하라. 어두움은 밤이라 하라." 하시니라.

4. 창세기 1:5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은 낮이라 하라. 어두움은 밤이라 하라." 하시니라.

5. 창세기 1:5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은 낮이라 하라. 어두움은 밤이라 하라." 하시니라.

6. 창세기 1:5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은 낮이라 하라. 어두움은 밤이라 하라." 하시니라.

7. 창세기 1:5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은 낮이라 하라. 어두움은 밤이라 하라." 하시니라.

8. 창세기 1:5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은 낮이라 하라. 어두움은 밤이라 하라." 하시니라.

9. 창세기 1:5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은 낮이라 하라. 어두움은 밤이라 하라." 하시니라.

darkness: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The fourth day: the sun, moon, and stars.

14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s in the firmament of the heaven to divide the day from the night; and let them be for signs, and for seasons, and for days, and years:

15 And let them be for lights in the firmament of the heaven to give light upon the earth: and it was so.

16 And God made two great lights; the greater light to rule the day, and the lesser light to rule the night: he made the stars also.

17 And God set them in the firmament of the heaven to give light upon the earth, and to divide the day and over the night, and to divide the light from the

1. 창세기 1:5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은 낮이라 하라. 어두움은 밤이라 하라." 하시니라.

2. 창세기 1:5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은 낮이라 하라. 어두움은 밤이라 하라." 하시니라.

3. 창세기 1:5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은 낮이라 하라. 어두움은 밤이라 하라." 하시니라.

4. 창세기 1:5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은 낮이라 하라. 어두움은 밤이라 하라." 하시니라.

5. 창세기 1:5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은 낮이라 하라. 어두움은 밤이라 하라." 하시니라.

6. 창세기 1:5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은 낮이라 하라. 어두움은 밤이라 하라." 하시니라.

7. 창세기 1:5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은 낮이라 하라. 어두움은 밤이라 하라." 하시니라.

8. 창세기 1:5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은 낮이라 하라. 어두움은 밤이라 하라." 하시니라.

9. 창세기 1:5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은 낮이라 하라. 어두움은 밤이라 하라." 하시니라.

10. 창세기 1:5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은 낮이라 하라. 어두움은 밤이라 하라." 하시니라.

11. 창세기 1:5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은 낮이라 하라. 어두움은 밤이라 하라." 하시니라.

12. 창세기 1:5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은 낮이라 하라. 어두움은 밤이라 하라." 하시니라.

13. 창세기 1:5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은 낮이라 하라. 어두움은 밤이라 하라." 하시니라.

14. 창세기 1:5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은 낮이라 하라. 어두움은 밤이라 하라." 하시니라.

15. 창세기 1:5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은 낮이라 하라. 어두움은 밤이라 하라." 하시니라.

16. 창세기 1:5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은 낮이라 하라. 어두움은 밤이라 하라." 하시니라.

17. 창세기 1:5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은 낮이라 하라. 어두움은 밤이라 하라." 하시니라.

18. 창세기 1:5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은 낮이라 하라. 어두움은 밤이라 하라." 하시니라.

19. 창세기 1:5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은 낮이라 하라. 어두움은 밤이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책보다도
예리하여 온과 영, 그리고 관철과 결수를 쫓아가고
마음의 새 각들과 의 도를 열람할 줄 알고 있다

■ 협력 지역

- 월간 <성경대로만든사람들>** 신어과 교리의 고능 장려자로서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는
말씀보존학회의 이회지 www.biblemaster.co.kr
- 키제임스장경신학대학** 바른 성경 정확 바른 신약 교리 정연 능숙한 말과 양
성을 목표로 한 정성 신학의 요람 www.kjbc.org
- 바이블퍼워** 크리스찬 대학생을 위한 인터넷 신보, 교회 개혁을 선도
하는 디지털 신보 www.biblepower.co.kr
- 서울크리스찬중고등학교**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위한 정통 기독교 대학
학교 www.SeoulChristiansSchool.or.kr

말씀보존학회 (WORD OF GOD PRESERVATION SOCIETY)
157-600 서울시 강서구체육 90호, 전화 02-2665-3743, 팩스 02-2665-3302
e-mail : kjv@biblemaster.co.kr
* 말씀보존학회는 성경침례교회의 문서 지역 기관입니다.

www.biblemaster.co.kr

우리말로 번역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유용"한 "이"는

한글 키제임스장경

바른 원문에서 번역된 바른 성경
가장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성경
"삭제"되거나 "첨가"된 구절이 없는 성경
종교 개혁과 교회의 부흥을 가져온 성경



말씀보존학회